

##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민현식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머리말

국문법 연구 1세기를 돌아볼 때 초창기인 개화기 국문법 연구는 국어교육용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용<sup>1)</sup> 문법 연구가 혼재한 상황이었다. 그런 속에서나마 개화기 이래 로스(J. Ross), 리델(F. Ridel), 언더우드(H. G. Underwood), 램스테드(G. Ramstedt) 등에 의한 연구서가 나와 서구 문법의 관점에서 국어에 대한 외국인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찰을 보여 주었다.

그 후 학교 문법은 일제 하를 거치면서 해방 후 ‘학교문법통일안’(1963)을 거쳐 20여년 만인 1985년부터는 국정 단일 문법 체제로 들어가 현재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문법은 표면적인 용어의 분류 통일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며 전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의 표준 문법을 완성해 놓고 있지 못하다. 그 동안 국문법의 학문 문법 연구도 세계 문법학의 변화에 민감하여 수준이 높아졌지만 학교 문법의 내용에서는 품사, 성분상의 1차적 하위 분류,

---

1) 여기서 ‘국어 교육’은 내국인용 즉 제1 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용을 뜻하고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이나 해외 동포용 즉 제2 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을 뜻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주요 용어의 통일 정도만 제시한 교과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밀한 표준화가 아직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40여 년 전의 '통일안'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이므로 한국어 교육이 국내외에서 시작된 이래 제2 언어,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문법 교육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국정 표준 문법 시기 이전의 학교 문법서들처럼 혼란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1959년에 연세대가 한국어학당을 세운 이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늘면서 각 대학에 한국어 교육 부서가 생겨나고 있고 한국어 교사 단기 양성 과정도 생겨났는데 국제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은 아직도 뚜렷한 방법론과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한국어 교육용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문법 교육 분야뿐만은 아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발음, 문법, 어휘 영역은 중요한 3대 영역이라 할 수 있거니와 현재 나와 있는 한국어 학습용 교과서들에서도 발음, 문법, 어휘 사항을 종합하여 편찬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발음, 문법, 어휘 영역별 전문 학습서, 연구서류는 몇 권 없는 상황이며 더욱이 영어나 일본어권 학습자용에 치중해 있고 주요 언어권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도 않다. 한국어 교육용 문법 교육도 이 분야에 오래 종사한 개인이나 주요 기관에서 만든 종합형 교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몇 권의 전문 문법서가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도 (1) 종합형 교재의 문법 교육, (2) 문법 교육 전문서의 문법 교육으로 나누어 현행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의 혼란스런 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종합형 교재들에 나타난 문법 교육

국내의 한국어 학습서들로는 주요 각 대학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발음, 문법, 어휘 항목을 종합하여 초, 중, 고급 수준에 맞추어 발행한 종합형 교재

들이 여럿 나와 있다. 여기서는 이들 교재에 나타난 ‘발음, 문법’ 사항을 모두 넓은 의미의 ‘문법’ 개념에 넣어 살펴보도록 한다.

### (1)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1992). 『한국어』 1-6 권

이 책은 매 과의 구성이 <대화-어휘-문법-문형 연습>의 순서로 구성되어 문법 사항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문법 사항은 문법 형태소나 문형에 대한 영문 설명과 예시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화 본문과 문형 학습의 문법 사항 설명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문법 항목이 일정한 체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법’ 개념은 학교 문법에서처럼 음운 영역이나 정서법 영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서 ‘문법’ 부문의 처음 설명은 입문 단계에서 으레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이나 한글의 음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연세대 교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표준어규정(1988)의 표준발음법에서 ‘의’는 [의/예]로, ‘외’는 [ø/we]로, ‘위’는 [y/wi]로 복수 발음이 허용되는데 이 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글 자모 음가 설명과 관련하여서는 기관 교재들마다 로마자 표기법이 달라 로마자 표기법의 통일은 여기서도 절실한 문제이다.

같은 책 안에서 문법 용어상의 혼란도 보인다. ‘이/가’를 case particle 이라 하다가(한국어 1:17) case marker(한국어 1: 45)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불규칙 관련 설명에서는 ‘ㄹ 불규칙 동사, 르 불규칙 동사’와 같은 명명법을 쓰지 않고 ‘ㄹ 동사, 르 동사’와 같은 설명 방식을 취하는 것도 특징이다.

문법 형태들의 설명시 범주 명칭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령 ‘까지’는 보조사로 보고 auxiliary particle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도, 는’(1권 45, 47쪽)에 대해서는 특수조사나 보조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기능 설명만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문법 범주 인식을 명확히 구별해 주지 않고 있다. ‘-겠-, -시-’와 같은 선어말어미를 suffix로 명명하여 suffix의 개념에 혼란을 준다. 시제도 과거시제는 ‘-았-’, 미래시제는 ‘-겠-’으로 했는데

현재시제는 영(零)형태소만을 제시하여 ‘-는/ㄴ-’의 현재 시제성이 무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문형 제시를 통한 한국어 습득에 치중하는 체제이고 문법 지식은 문형 설명에서나 소용되는 정도이므로 전체적인 국문법 체계의 제시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세대 교재는 전통적인 문형 반복 학습을 통하여 언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방법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이나 청각 구두법(Audiolingual Method)의 문법 교육에서는 한 전범(典範)을 이루어 다른 교재들에 준 영향이 크다. 단지 기관 교재들이 종합형 교재이다 보니 학습자의 국어 지식 학습이나 국문법 심화 학습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 (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1993). 『한국어』 1-4권

이상익 외(1판: 1992년, 2판: 1997년, 3판 2000년). 『Korean through English : 한국어』 1-3권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는 ‘한국어’(1-3권, 1979/ 1996 수정 4판)이 나온 바 있고 새로 홍재성 교수에 의해 ‘한국어’ 1-4권이 나온 바 있다. 후자는 <본문-발음-문법-어휘와 표현-연습 1, 2>로 되어 있는데 역시 문법 설명은 문형 훈련 속에서 제시하고 있어 전통적 청각 구두법 교재들과 비슷한 성격이다.

이와 별도로 문화부 지원으로 제작된 이상익 외(1992)는 독습자용으로 서울대 어학연구소 관련자들이 펴낸 것으로 문법 교수요목에 따라 최근에 개정판을 내어 여기에서 언급한다. 이 책은 전 3권 각권 25과씩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매 과마다 <어휘와 발음-본문-문법-연습문제-한국을 압시다>로 되어 있다. 문법 설명은 본문 관련 표현이나 문형 설명과 관련하여 영어로 설명하고 있어 연세대, 고려대 교재와 비슷한 방식이다. 연세대나 고려대 교재와 달리 본문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어휘와 발음을 먼저 제시한 것이 다르다.

이 책은 1권에서 한글 기초를 학습한 후에는 문법 부문의 경우 ‘-요, -세요’와 같은 상대높임법 항목부터 여러 과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매 과마다 조사나 어미별로 용법을 설명하고 수사의 종류, 어순, 축약(‘나는’)난,

너의)네' 따위), 부정법, 불규칙활용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불규칙은 ㄷ, ㄹ, ㅂ, ㅅ, ㄹ, ㅎ 불규칙을 설정하는데 학교 문법에서 ㄹ 불규칙을 ㄹ 탈락 현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2권에서는 '못 먹다, 안 먹다'의 '못, 안'을 prefix로 설명하였는데(10쪽) 전통적인 prefix와 성격이 다른 '못, 안'을 접두사로 설명하는 것은 두 언어의 문법 구조에 오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있다. 2권 16쪽에서는 '-사-'를 honorific infix로, '-았/었-'도 past infix로, '-겠-'도 suppositional(intentional) infix로 하고 있는데 원래 국어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 infix를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 설명하는 것도 문제이다. 더욱이 이들 '-사-, -았/었-'은 infix로 설명하고 이들과 같은 선어말어미인 '-다-'는 retrospective marker로 marker라는 말을 쓰기도 하여(3권 28쪽) 용어 사용에서 일관된 관점이 요구된다.

격조사도 particle, case marker를 섞어 쓰고 어미도 ending이나 particle로 하거나 '-다가(3권 16쪽), -면서(3권 22쪽), -ㄹ 텐데'(3권 28쪽)는 non-final ending이라 하여 용어 사용의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법 용어는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문법 형태 제시와 기능 이해 중심의 학습을 유도하여 한국어 교육이 문법 지식 학습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 언어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문법의 품사와 성분 분류, 활용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목적으로 편성하지 않았기에 문법 교육상의 심층 학습을 위해서는 전문 학습서가 요구된다.

그런데 그 동안 국내의 주요 교재들이 문법 부분의 교수요목을 확정하고 체계적으로 펴낸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 책은 다른 어느 책보다도 문법 교수요목을 연구한 이상억(1997, 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교수요목을 반영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한국어 학습서들의 문법 설명 항목이 대체로 비체계적인데 이상억(1998)은 한국어 교육용 문법 교수요목을 <음운 현상>과 <통사 현상>으로 그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빈도순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기존 교재들에서 다루고 있는 실태를 분석 비판함으로써 이 분야에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음운 현상: 음 변화 규칙 29개 항〉

- |                 |               |
|-----------------|---------------|
| 1) 음절말 유성자음 불파화 | 2) 유성음화       |
| 3) 장모음화         | 4) 설측음화       |
| 5) 경음화          | 6) 음절말 장애음 중화 |
| 7) ㅅ 구개음화       | 8) 음절조정 규칙    |
| 9) 단모음화         | 10) ㄴ 구개음화    |
| 11) 외-웨         | 12) 비음화       |
| 13) ㄴ-ㄹ         | 14) 두음법칙      |
| 15) 구개음 뒤의 y-탈락 | 16) 위-wi      |
| 17) ㄹ 구개음화      | 18) 격음화       |
| 19) ㅎ 탈락        | 20) 유음화       |
| 21) 의- 으/이      | 22) 사이 ㅅ-ㄷ    |
| 23) ㄴ 삼입        | 24) 의-에       |
| 25) 자음군 단순화     | 26) ㄷ 구개음화    |
| 27) 변자음화        | 28) 예-에       |
| 29) y-활음화       |               |

〈통사 현상: 22개 항〉

- |              |             |
|--------------|-------------|
| 1) 명사구보문화    | 2) 종속접속화    |
| 3) 관계화       | 4) 주제화      |
| 5) 등위접속화     | 6) 동사구보문화   |
| 7) 인칭대명사화    | 8) 명사화      |
| 9) 특수피동      | 10) '안' 부정화 |
| 11) 복수화      | 12) 의문화     |
| 13) 장형피동     | 14) 부정대명사화  |
| 15) 단형피동     | 16) '못' 부정화 |
| 17) 재귀대명사화   | 18) 단형사동    |
| 19) '말다' 부정화 | 20) 장형사동    |
| 21) 접속문축소    | 22) 경어화     |

이상억(1998)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교재들은 위 항목들을 대부분 충실히 다루고 있지 않고 특히 음운 부문 설명이 매우 부실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상억 외(1992)의 개정판(2000)에서는 위 교수요목을 고르게 반영한 편이다.

물론 위 항목 외에도 추가할 문법 관련 교수요목은 더 있다고 본다. 위 항목에는 격조사나 보조사 관련 항목, 의존명사와 의존용언 관련 항목, 불규칙용언 관련 항목, 수사와 수량화, 관형사와 부사 관련 항목과 같은 품사 관련 항목은 거의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통사 항목도 인용법, 서법, 시제와 상 관련 항목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음운 부문에도 장단 현상과 같은 초분절음소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 (3) 고려대(1986, 2000 개정판). 『한국어』 1-6권, 『한국어 회화』 1-6권

#### 고려대 한국학연구소(1997). 『한국어 능력 평가』(문법 및 문장편)

고려대 기관 교재로는 ‘한국어 1-6’과 ‘한국어회화 1-6’이 있다. ‘한국어’의 각 과는 <본문-새단어-기본 문형-새단어>의 순서로 되었고 1, 2권만 문법 항목 설명을 영문으로 하고 있다. 3권부터 6권까지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문법 설명은 전혀 없이 ‘본문+기본 문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주요 용어를 보면 연세대 책이 동사를 action verb, 형용사를 quality verb라 한 것과 달리 verb, adjective를 쓰고 단위 의존명사는 ‘수량명사 numeral classifiers’라 하며 조사는 particle로 하고 ‘이다’는 copula로 하였다.

‘-고’는 conjunctive ending, ‘-아서’는 connective suffix, ‘-으면’은 connective ending이라 하여 같은 어미 형태들을 두고 용어 혼란이 보인다. 시제 선어말어미 ‘-겠’, ‘-더’, ‘-았/었’을 infix로 표현하는 것도 학교 문법과 다른 처리이다.

또 다른 교재인 ‘한국어회화’는 같은 학교 교재인 ‘한국어’와 체계가 같아 <본문-새단어-기본 문형-연습-새단어>의 순서로 구성되었고 문법 설명은 ‘기본 문형’ 부분에서 문형 설명을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데 문법 체계 제시보다는 문형에 대한 기능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문법 용어들이 가끔 등장한다.

용어는 동일 형태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용어를 보여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다. 가령 '-아/어서'를 한국어 회화 1권 133쪽에서 conjunctive ending으로 설명하였다가 같은 쪽에서 connective suffix이라고 하여 일관되지 않다. 불규칙 활용에서는 연세대 교재가 불규칙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고려대 교재는 불규칙이란 말을 쓴다. 전체적으로 고려대 교재들도 청각구두 학습용 문법 교육 교재로 머물고 있다.

고려대에서 나온 책으로는 '한국어 능력 평가'(문법 및 문장 편)도 주목된다. 이 책은 한국어 문법 지식에 바탕을 둔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집이다. 책의 체계는 1. 음운 2. 형태 3. 통어·의미 4. 어휘 5. 문장의 순서로 되어 있고 각 단원마다 10-15쪽 내외의 문법 지식을 요약하고 각 단원마다 연습문제를 40-70쪽 내외로 편성하고 있다.

문법 설명은 전체적으로 기존 내국인용 학교 문법 체계와 상당히 유사해 그 내용의 요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한국어 교육용 교재나 문법서들이 국내의 학교 문법과 용어나 체계상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 문법 체계를 순순한 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학교 문법서와 다른 독자적 기술 방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문장의 형식은 학교 문법서에는 나오지 않으나 이 책에서는 영문법의 기본 5형식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문장의 종류도 과거 전통 문법의 분류법을 따라 '포유문(주종문), 중문(접속문), 혼합문'으로 제시하여 학교 문법에서 단문, 복문의 이분법만 취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자음 체계 설명시에도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양순음, 치경음, 구개치경음, 연구개음, 성문음의 분류를 취하는데(2쪽) 학교 문법서인 고교 문법(1996년판 24쪽)에서는 구개치경음을 경구개음으로 하여 ㅈ, ㅊ, ㅉ 계열음에 대한 조음점의 인식 차이를 보인다. ㅈ, ㅊ, ㅉ의 경우는 고려대 책처럼 구개치경음으로 보느냐, 연세대 교재나 학교 문법서처럼 경구개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후술할 Lukoff(1993)처럼 처음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이런 기본 사항이야말로 관련자들이 통일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의미 관련

용어도 ‘부분 동의어’를 ‘유사어’라 하여 학교 문법과 다른 용어를 보여 준다.

#### (4) Fred Lukoff(1993).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Revised)* I-Ⅲ권

이 책도 저자의 풍부한 한국어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책인데 I, II권을 합해 총 27과 체재이며 III권은 I, II권의 회화 부분만을 따로 요약판으로 펴낸 책이다. 이 책은 <본문-Sentence Build-up-Grammar-Exercises-Glossary>의 체재이며 각 과마다 본문과 영문 대역문, 문법 항목과 문형에 대한 영문 설명이 상세하고 풍부하다. 국어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은 머쿤-라이샤워(MR) 체제를 쓰고 있는데 한글 자모와 음운 설명에서 다른 책들이 처음에 ㄷ, ㅌ 계를 두고 경구개음(또는 치조경구개음)에 ㅈ 계를 두고 있으나 이 책은 ㄷ, ㅌ, ㅈ 계를 모두 Dental, 즉 처음에 배열하여 조음점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문법 체제와 용어도 개인적 특성을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혼란이 보인다. 가령 ‘이/가’라든가 ‘로’는 noun suffix로 하면서 같은 조사 ‘에서, 에다가’는 noun ending, ‘와/과’는 noun particle로 하여 조사류를 suffix, ending, particle 등으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미도 conjunctive ending이나 verb suffix라고 하였다. 그 밖에 동사는 action verb, 형용사는 adjective verb, 지정사는 linking verb라고 한 것도 특징이다.

#### (5)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1981). 『朝鮮語の入門』

이 책은 한국어 입문서로 나온 것인데 체제는 크게 세 부분과 부록으로 되어 있다. 입문서라 했지만 3부는 고급 수준의 읽기 자료를 포함하여 전형적인 단권 종합형 교재이다.

1부. 文字と發音: 1항-51항에 걸쳐 문자, 발음, 기초 문법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2부. 例文と解説: 1과-35과까지 예문을 한국어문과 그에 대한 譯文으로 같이 배치하고 각 과마다 문법 항목을 4-6개 항씩 배치하여 전체 제52항부

터 제220항에 걸쳐 비교적 상세한 문법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예문은 거의 한글전용체인데 34과처럼 국한혼용체 예문도 드물게 배치하였다. 2부에는 몇 개 과마다 ‘문법 정리와 연습’ 부분을 두어 문법 설명을 요약하고 연습문제를 두었다.

3부. よみもの(읽을 거리): 한일 대역문체로 읽을 거리를 제시하였다. ‘붉은산(김동인), 진달래꽃(김소월), 현해탄(임화), 4·19 선언문(고려대 학생회), 3·1 독립선언문, 小説에 대한 조선인의 사상을...(김동인), 是日也放聲大哭(장지연), 독립신문 창간호

부록: 남북 정서법의 차이, 남북 단어의 차이, 한일 어휘 대조 색인

주요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ㄱ. 문법 사항을 상세하고도 간결하게 정리하였는데 문법 용어나 체계는 일본어 문법 체계나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거나 새로 독창적으로 쓴 경우가 많다. 종결형은 ‘終止形’, 관형형은 ‘連體形’, 대등연결어미는 ‘中止形(-고<sup>1</sup>, -지), 명사형은 ‘體言形(-기), 연결형은 ‘接續形(-고<sup>2</sup>, -며)으로 하였다. 새롭게 분류한 意思形(-르께, -르래), 婉曲形(-ㄴ데요), 詠嘆形(-군요), 確言形(-조), 意思推量形(-겠-, -르 것-) 등의 용어 설명도 특이하다. 그 밖에 ‘말이 조’는 挿入語, ‘的’은 形容名詞, ‘-기 때문에, -를 위한, -를 위하여’는 後置詞, ‘-들’은 複數語尾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선어말어미도 ‘-시-’를 尊敬 接尾辭, ‘-겠-’을 意思·推量 接尾辭, 시제 선어말어미도 時制 接尾辭로 보아 우리의 ‘접미사’ 개념과 다르다. 그러나 피동, 사동 접미사는 受身, 使役 接尾辭라 하여 접미사 개념이 같다.

ㄴ. 자음 체계에서는 국문법에서 치음과 경구개음을 구별하는 일반적 태도와 달리 ‘치음’ 안에 ㄷ, ㅈ, ㅊ 계를 같이 위치시켜 놓고 있어 Lukoff(1993)와 같은 태도이다. 용어도 ‘硬音’은 ‘濃音’이라고 한다.

ㄷ. 체언의 조사를 모두 ‘體言語尾’로 부르는데 격조사는 주로 ‘格語尾’로도 부른다. 의존명사는 ‘不完全名詞’로, 단위 의존명사는 ‘名數詞’로 부르고 있다. ‘자음말음어간, 모음말음어간’이란 표현을 ‘자음어간, 모음어간’이란 말로

많이 쓴다.

ㄹ. 용언에 지정사(이다, 아니다)와 존재사(있다, 없다, 계시다)를 설정하고 있다.

ㄱ. 용언 활용론에서 독특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語幹, 語基, 語根의 개념을 구별하고 자음어간에서 후행어미에 모음 ‘-으-’가 오지 않으면 第Ⅰ語基, ‘으’가 오면 第Ⅱ語基라 하였고 소위 부사형 어미 ‘-아’가 오는 경우를 第Ⅲ語基라 하여 다음 예처럼 第Ⅰ, Ⅱ, Ⅲ語基를 설정하였다.

		第Ⅰ語基	第Ⅱ語基	第Ⅲ語基
자음어간		작-	작으-	작아-
ㄹ 어간		팔-/파-		팔아-
모음어간	ㅏ, ㅓ, ㅕ, ㅣ	싸-, 오-, 배우-, 보내-, 그리-		싸-, 와-, 배워-, 보내-, 그려-
	으 어간	바쁘-, 예쁘-, 쓰-		바빠-, 예뻐-, 써-
	변격용언 (여 변격)	하-		하여-

ㄴ. 불규칙활용은 ‘變格用言’이라 하고 ‘ㅂ, ㄷ, ㅌ, ㅎ, ㄹ, ㄹ, ㄹ, 여’ 변격을 설정한다.

ㄷ. 상대높임법을 ‘階稱’이라 하고 ‘가다-갑니다-간다’를 ‘基本形-上稱-下稱’으로 설정하고 있다.

ㄹ. 종결어미 분류도 서법을 직설법, 회상법, 추량법으로 나누었는데 추량법은 ‘-리라, -ㄹ까요, -랴’를 가리킨다. 평서형을 진술형, 감탄형을 영탄형, 청유형을 권유형이라 하고 독특한 하위 서법 용어를 보인다(178쪽, 204쪽). 가령 陳述形은 단정형(-습니다, -는다), 완곡형(-ㄴ데요, -ㄴ데), 확인형(-죠, -지요, -지)으로 하위 분류하고 있다.

ㅈ. 예문이나 문법 설명시 구어체(입말체)와 문어체(글말체)를 구별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 가령 ‘에게’는 문어체, ‘한테’는 구어체임을 각각 [書], [話]라는 약호로 표시하고 있다.

ㅊ. 보조용언에는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 외에 ‘계시다, 있다’를 보조존제사로 두고 있다. 국내 문법서에서는 ‘죽겠다’를 보조동사로 본 것이 드문데 위 책에서는 설정하고 있어 예리한 관찰력을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입문서라는 제목과 달리 고급 수준의 읽기 자료까지 포함한 종합형 교재로 문법 사항을 일본어 문법 용어로 번역하여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문법서로 제시한 책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 종합 학습서들에서 제시한 문법 학습은 실용적인 문형 중심의 학습으로 학교 문법과는 별도의 체계와 용어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학교 문법과 연계된 한국어 문법 교육과 교수요목의 확립이 절실하다.

### 3. 문법 교육 전문서의 문법 교육

문법 교육 전문서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이 경우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학습용 전문서나 아니면 마틴(S. E. Martin 1992)처럼 학문 문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서나에 따라 차이를 나눌 수도 있다.

#### (1) 임호빈·홍경표·장숙인(198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번역판] Ihm Ho-bin, Hong Kyung-pyo, Chang Suk-in(1988).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

이 책은 문법 중심의 학습서로 한국어판이 먼저 나온 것을 K. Samuel Lee가 다시 영어로 번역하였고 일본어 역본도 나왔는데, 1부 Basic Grammar, 2부 Advanced Grammar로 되어 있는 책이다. 1부는 문법 사항을 다음 순서의 단원별로 배치하였는데 문장 구조를 맨 앞에 제시하고 보조동사를 조동사로 표현했으며 접속사를 설정한 점 등이 주목된다.

문장의 구조(Sentence Structure), 명사(Nouns), 의존명사(Bound Nouns), 대명사(Pronouns), 수사(Numerals), 조사(Particles), 관형사(Adnominals), 부사(Adverbials), 동사(Verbs), 동사의 활용어미(Conjugative Endings of Verbs), 불규칙동사(Irregular verbs), 조동사(Auxiliary Verbs), 접속사

(Conjunctives), 시제(Tenses), 피동과 사동(Passive & Causative), 존대법(Honorific Forms of Speech), 부정(Negation), 화법(Narratives)

대학 기관들의 한국어 교재가 문법 지식을 가급적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문법 용어 사용도 억제하는 편인데 이 책은 한국인에 의해 한국어 문법을 전면적으로 다룬 전문 문법서로서 문법 사항과 문형 학습을 동시에 하도록 한 교재이다. 가령, 의존명사 항에서는 ‘-ㄴ 수 있다, -ㄴ 적이 있다, -ㄴ 줄 모르다, -는 중이다’처럼 의존명사 관련 문형을 학습하고 명사형 ‘-기’ 항에서는 ‘-기 위해서, -기 때문에’ 따위를 배우도록 배치하는 방식이다.

제1부의 기초 문법에는 한국어 문법 체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동작동사(action verb), 형용동사(adjectival verb, descriptive verb)’와 같은 용어나 접속사를 따로 설정하는 것 따위가 학교 문법과 다른데 기본 문형은 4형식으로 하였다. 조사류는 particle로 하고 있고 용언의 활용어미(conjugative ending of verbs)는 terminative endings, conjunctive endings, adnominal endings, nominal endings으로 분류하고 불규칙 활용은 ㄴ, ㅂ, ㄷ, ㄹ, ㅎ, ㅅ 불규칙만 제시하였다. 화계(speech level)는 하오체를 제외한 채 격식체에 합쇼체(high form, 존대형), 하계체(neutral form, 중립형), 해라체(low form, 하대형)를 넣고 비격식체에는 해요체(high form)와 해체(low form)를 넣었다.

이상과 같은 제1부의 각 단원 체재는 <문법 지식 설명 → 문형 설명 → 연습문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습문제는 단문 중심의 문장 만들기, 활용형 빈칸 채우기, 단문 대화 완성해 보기, 문장 변형해 보기, 연결어미 이용하여 문장 잇기 등의 유형으로 되어 있고 대화문을 예시하는 기존 회화 학습형 교재들이나 읽기형 독해 교재와 다르다.

제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루지 못한 추가 문법 형태들과 문형들을 크게 명사 구성, 어미 구성, 보조용언 구성, 간접인용 구성을 중심으로 형태 설명과 문형 학습을 하도록 구성하였고 1부와 달리 연습문제는 없다.

## (2) 朝鮮語學硏究會 編著. 管野裕臣 監修(1987). 『朝鮮語を學ぼう』

이 책은 일본어 연구자 8인과 한국인 2인이 공편한 것으로 한국어 문법을 일본어 문법 용어나 체계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독자적 체계를 제시한 문법서로 감수자인 간노 히로오미(管野裕臣 1981)의 ‘朝鮮語の入門’과 체계나 용어가 거의 비슷하다. 일본어권에서의 한국어 연구가 개화기 이래 단탄히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 책은 그러한 역사적 흐름 위에서 정제된 문법서라 하겠다. 특히 다른 교재들이 문형 중심의 학습을 곁들여 제공하는 데 반해 이 책은 그런 연습 부분도 없이 오로지 문법 항목에 대해 자세한 설명만 제시하고 있어 일본어권에서의 독창적 한국어 문법 연구서라 하겠다. 전체 6장 총 121과로 방대하게 세분한 체재인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장. 文字, 發音, 正書法: 1-21과
- 2장. 文法の基礎 - 體言語尾, 用言의 第Ⅰ 語基와 第Ⅱ 語基, 用言의 接尾辭: 22-41과
- 3장. 過去形과 第Ⅲ 語基: 42-62과
- 4장. 變格用言과 用言의 連體形, 體言形: 63-78과
- 5장. 談話에 나타나는 形: 79-96과
- 6장. 文法的 形: 97-121과

이 책의 주요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ㄱ. 용어에서 일본식 용어를 쓰고 있다. ‘가가거겨...’로 된 자모음절표를 ‘反切表’라 하고 ‘硬音’을 ‘濃音’이라 한 점, 관형형을 連體形이라 한 점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모든 용어가 일본어 문법 용어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일본어에서 ‘格助詞’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 책에서는 격조사나 보조사를 불문하고 ‘體言語尾’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 ‘強調形’도 학교 문법에서는 안 쓰이는데 ‘가기는 한다, 좋기는 좋다’의 ‘-기’를 강조형 어미로 보고 있고 ‘-군요’는 ‘詠嘆形’으로, ‘고운데요, 책인데요’의 ‘-는데요’는 ‘婉曲形’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용어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다, 아니다’는 指定詞, ‘있다, 없다, 계시

다'를 存在詞로 설정하고 선어말어미도 '接尾辭'라고 하여 용어 사용이 다르다. '-겠-'이 들어가는 어간을 개연성 어간, -시-가 들어가는 어간을 존경어간이라 하는 것도 보인다.

우리의 용어와 같은 것이 쓰였더라도 개념은 같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령 '-이/히'와 '-게'를 파생부사 접미사와 부사형어미로 구별하는 국내 학교 문법의 체계와 달리 위 책에서는 이들을 같이 '副詞形'으로 묶어 다루었다(위 책 153쪽).

ㄴ. 용언 활용론은 간노(1981)와 같은 분석을 보여 자음어간에서 후행어미에 모음 '-으-'가 오지 않으면 第Ⅰ 語基, '으'가 오면 第Ⅱ 語基라 하였고 소위 부사형 어미 '-아'가 오는 경우를 第Ⅲ 語基라 하여 第Ⅰ, Ⅱ, Ⅲ 語基를 설정하였다.

어미 '-아'가 오는 경우를 第Ⅲ 語基라 하여 '-았/었-'도 '-아/어+쓰'으로 분해하고 '제Ⅲ 어기+쓰'으로 보는 분석이 일본인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는지 모르나 국어의 정확한 분석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자음 말음 어간, 모음 말음 어간, ㄹ 말음 어간 등의 구별에 따라 후행하는 어미가 음운 현상의 제약을 받는 국어 어간의 특성을 감안한 이런 분류는 우리의 학교 문법에서도 소홀한 분석이라 하겠다.

ㄷ. 변격용언에는 ㄷ, ㄹ, ㄴ, ㄹ, ㅂ, ㅅ, ㅎ, 여 변격을 설정하고 있다.

ㄹ. '-ㄴ다/-다'체는 下稱, '-습니다/-ㅂ니다'체는 上稱(위 책 206쪽)으로 설명하고 있다.

ㄱ. 입말체에서 쓰이는 준말 형태들 가령 '것'거', '에는)엔', '무엇)뽀' 등을 특별히 다루고 있어 문법 설명시 구어체와 문어체를 모두 반영한 기술을 보여 준다.

ㅂ. 남북한의 언어 규범의 차이까지 [남], [북] 약호로 표시하여 매우 치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

### (3) 吳滿, 安秉坤 공저(1998). 『韓國語 文法』

이 책은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전문서로 서문에서 밝힌 대

로 국내 학교 문법 1991년판과 1988년 새어문규범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학교 문법에서 부록으로 처리하고 있는 고전 문법 부문까지 이 책에서 부록으로 달아 이 책은 국내 학교 문법의 일본어판 번역 문법서라 하겠다. 단지 서술어에서 고유어 용어 ‘한 자리 서술어’를 ‘一單位 敘述語’ 처럼 한자어로 바꾸고 상대높임법에서 합쇼, 하오, 하계, 해라체를 별칭으로 각각 ‘존칭체, 상칭체, 평칭체, 비칭체’로 붙인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이고 ‘칭유문’을 ‘권유문’으로 쓴 경우가 다를 뿐 거의 학교 문법 체계와 용어를 그대로 따랐다.

#### (4) Samuel E. Martin(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이 책은 총 1032쪽의 학문문법 연구서로 이 책에 보이는 국어에 대한 각종 기술과 분석표는 국내 문법서에서도 보기 어려운 독특한 관찰을 담고 있어 외국인에 의한 한국어 문법 연구서로는 20세기 최대의 업적이라 하겠다. 제1부는 ‘Korean Structure’라 하여 13개 단원으로 나누어 한국어의 음운, 품사류, 어휘 및 통사 구성을 분류하고 제2부는 ‘Grammartical Lexicon’으로 일종의 ‘한국어 문법 형태 사전’인데 국내 저자에 의해서도 이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

그의 자료 기술과 분석은 치밀함과 독특함이 있는데 가령 그는 부사도 “An adverb is a noun that occurs typically(and a few of them perhaps exclusively) in absolute position, i.e. as an adverbial phrase”(위 책 135쪽)라는 정의에서 보듯 명사로 보아 명사가 부사적 구성에서 나타난 것으로 본다. 감탄사도 이러한 명사적 부사의 일종으로 본다(위 142쪽). 전반적으로 분류가 복잡하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 책은 외국인에 의한 학문 문법서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 (5)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이 책은 한국어 문법 전문 학습을 위해 사전 체제로 엮은 책이다. 전체가 3부 체제로 1부는 한국어 문법을 개괄 요약한 ‘한국어 문법 일반’인데 동사의 활용, 동사의 불규칙 활용, 시제와 시상어미, 문장 종결법, 인용문, 어순, 부

정법, 존대말과 반말, 피동사, 사동사, 인칭대명사, 숫자, 품사라는 13장으로 구성되었다. 2부는 '한국어 문법 형태'라 하여 중요 한국어 문형이나 문법적 표현들을 482개로 정리하여 가나다 순으로 배치했고 제3부는 제1부와 관련한 사항을 도식화한 도표들 1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한국어 학습자 전문 문법서로서는 사전식으로 한 것이 특징인데 품사 분류 등은 학교 문법과는 다른 체제를 보인다. 우선 품사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명사류어: 명사, 대명사

동사류어: 동작동사, 상태동사, '이다' 동사

관계사류어: 조사

어미(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관형사형어미, 부사형어미, 명사형어미)

관형사류어: 관형사

부사류어: 부사

감탄사류어: 감탄사

위를 보면 '○○류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구조주의적 용어를 보여 주고 지정사를 설정하여 외술 최현배 문법과 같다. 또한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라는 용어를 쓴 점, 수사를 독립하지 않고 명사에 포함한 점도 특이하며 특히 어미를 조사와 함께 관계사류에 독립시킨 점은 개화기 학자들의 문법 유형과도 흡사한 점을 보여 준다. 이처럼 품사 분류가 내국인용 문법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은 한국어 자체의 틀이 되어야 하고 또 한국어 습득자의 모국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백봉자 1999: 48)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용 문법이 내국인용 학교 문법과 달라야만 하는가의 문제는 앞으로의 해결 과제이다.

문장 종결법에서는 서술문을 일반서술, 약속서술(-마), 확인서술(-지), 감탄서술(-군)로, 의문문은 일반의문, 의문사 의문, 확인의문(-지?), 의도의문(-랴?, -ㄴ까?) 등으로, 명령문은 일반명령, 허락명령(-렴)으로 나누고 끝

으로 청유문을 설정하였다. 높임법의 체계는 '존대법과 반말'이라는 장에서 다루는데 기존 6등분 체계에서 하오체는 현대 회화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면 5등분 체계(하십시오, 하계, 해라, 해요, 해체)로 한 것이 특징이며 반말을 특히 부각시켰다.

제2부인 <한국어 문법 형태>에서는 다양한 문형, 어구 482개의 설명과 용례를 사전식으로 제시하였는데 482개의 선정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사, 어미, 의존명사 구문(...줄 알다 등), 의존용언 구문(-어 대다, -어 보다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 책이 한국어 구어체(회화체)에 자주 등장하는 어법(가령, -감이 있다, -면 몰라도, -ㄹ 바에야-, -아 빠지다, -셈치고, 주십사 하다, -ㄹ 참이다 등)을 다수 제시한 것은 한국어 실용 회화를 배워 익히는 것이 1차 목표인 한국어 학습자를 배려한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어 교육 관련 교재나 문법 연구서들은 회화 교육에 비중을 두다 보니 현저하게 현대 국어의 구어체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향을 띠는데 기존 내국인용 문법 연구서가 구어보다는 문어 위주의 문법 기술을 해 온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4.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어 학습서를 종합형 교재와 문법 전문서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특성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회화 중심의 종합형 교재들은 회화 본문 중심의 교재라 문법 설명은 관련 문법 형태나 문형의 설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교재들의 이런 상황 때문에 문법 설명도 회화체 즉 구어체 중심으로 흐르는데 이는 우리의 국문법이 문어체 중심의 연구로 이루어져 온 전통과 대비되므로 앞으로 표준 국문법의 정립에는 예문 선택에서부터 이 두 가지 문체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고 두 문체에 모두 적용되는 문법 체계를 제시하여

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어체 문법과 구어체 문법이 다른 것인 양 기술되는 것은 문법 기술에 오해와 혼란만 줄 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용어나 품사 분류 체계는 어디까지나 내국인용 학교 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일 통합 체제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본다.

(2) 한국어 교육용 교재나 문법서들의 문법 설명이 1985년의 통일 국정 학교 문법 체계와는 아직도 다른 체계와 용어로 문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와서야 일부에서 학교 문법을 따르는 한국어 교육용 교재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국인용이나 외국인용이나 한국어 문법을 통일하여 표준화하도록 학계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 문법 분야에는 아직도 지정사 설정과 같은 외설 문법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 학교 문법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라 하겠다. 내국인용이든 외국인용이든 국어 문법 체계는 통일되어야 하며 단지 교수 방법이나 학습 방법에서 달리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북한 문법이 다른 것도 장차 통일의 과제인데 남한 내부에서도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이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어의 발전과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급히 고쳐야 한다.

영문법을 비롯하여 일문법, 독문법, 불문법 등이 원어의 문법 체계와 용어를 충실히 따라 내국인용이나 외국인용이 모두 동일하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문법만이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이 서로 다른 체계로 교육되는 것은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또한 국문법의 체계와 용어를 학습자 언어권별로 해당 언어의 번역 용어로 가르치는 경우도 통일된 번역 용어를 제시하여 통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조사를 particle, case marker, suffix로 섞어 부르고 선어말어미를 suffix, infix 따위로 부르는 것도 일반언어학의 용어 개념에 어긋나므로 일반언어학의 문법 용어와 개념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외국인용의 구별이 아니며 교수법상 한국어 교육용을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교수요목을 정하고 교수법, 교수과정을 어떻게 다양화, 위계화할 것인가가 과제라 하겠다.

(3) 발음, 문법, 어휘, 화용 차원에서 문법 표준 교수요목이 만들어지고

학습자 수준에 따라 위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한국어 발음의 난이도 조사에 따른 발음 교육의 단계화, ② 어휘 빈도 조사에 따른 한국어 어휘의 학습 단계화, ③ 말뭉치에서의 문형 빈도 조사와 난이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처럼 한국어 문법의 표준화가 아직도 미비한 것은 내국인용 학교 문법부터 제대로 심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이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문법 연구가 정밀한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전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 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백봉자(1988). 「초기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무엇부터 다루는 것이 좋은가」. 『한글』 201·202. 한글학회.

\_\_\_\_\_(199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 『동방학지』 71·72 합본. 연세대.

\_\_\_\_\_(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 출판부.

원진숙(1992). 「외사소통능력 계발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교육한글』 5. 한글학회.

이관규(1995). 「한국어 교재의 구성 원리와 내용」. 『이중언어학회지』 12. 한국어중언어학회.

이상억(1997). 「역대 문법 교과서에 반영된 음변화 및 통사 현상의 분포 조사」. 『관악어문연구』 제21집. 서울대.

\_\_\_\_\_(1998).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문법 사항의 비교 평가」.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 검토 및 방향 제시.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간노 히로오미(管野裕臣. 1981). 『朝鮮語の入門』. 東京: 白水社.
- 朝鮮語學研究會 編著. 管野裕臣 監修(1987). 『朝鮮語を學ぼう』. 東京: 三修社.
- Chang. Namgui and Yong-chol Kim(1993). *Functional Korean*. Seoul: Hollym Co.
- Chang. Suk-in(1995). *Modern Conversational Korean*(Revised Edition). Seoul Press.
- Kim, In-seok(1996). *Colloquial Korean*. London: Routledge.
- Martin, Samuel E.(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Tokyo: Charles E. Tuttle Co.
- Park, Chang-Hai and Ki-Dawk Pak(1992). *Korean 1·2: An Intensive Course*.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Park, Francis Y.T.(1984). *Speaking Korean I-IV*. Seoul: Hollym Co.
- Lukoff, Fred(1993. 1997).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Revised) I-III권.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